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 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 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 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 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

[A] 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 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1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①
- 스트로슨: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②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게네스: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③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게네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다는 것을 수용한다.④
-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 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 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 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지문 분석하기

1문단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 첫 문장부터 개념 정의가 나온다. 이 글의 핵심어 두 개를 먼저 던져주네. '인격'은 특정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자아'는 그중에서도 '나'를 뜻한다. 그러면, 인격이 더 넓은 범위이고, 자아는 그 안의 '나'이니까 더 작은 범위네? (포함범주)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주제(화제)다.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그게 '모든 생각의 기반'이기 때문.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 왜 인격 동일성이 모든 생각의 기반인지 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약속'이나 '책임' 같은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은 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는 거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생각의 기반'이구나.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 '칸트 이전'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아, 이건 칸트와 차이를 가지는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칸트 이전의 견해에서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고 생각했단다. 그러면, 인격의 동일성 = 영혼의 지속성 이라는 말인가?

즉, "나는 왜 어제와 같은 나인가?" →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쫓 이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화제를 놓치지 말자. 우리, 지금 인격 동일성에 대한 논의를 보고 있는거 아니야? 그러면, 칸트 이전의 견해 역시 인격 동일성을 논하는 것이니까, 애네가 말한 '영혼'이 '인격 동일성의 전제'라고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이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 1문단 마지막에 다시 개념 정의. '주관'은 알의 주체(즉, '나'), '인식'은 알 그 자체. 그럼 전통적 견해는 '단일한 영혼'이 '알의 주체(주관)'로서 쫓 지속된다고 본 거네.

2문단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 드디어 주인공 칸트 등장. 칸트는 '영혼' 대신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이라는 키워드를 쓴다.

여기서가 결정적 차이! 칸트는 이 '자기의식'이 '영혼' 같은 '물건(실체)'이 아니라, 그냥 **알(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본다.

*멘탈 잡자! 자기의식은 뭐지? '생각하는 나'가 영혼이라며? '나는 생각한다'가 자기의식이면, 그래서 자기의식은 영혼이야, 아니야?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세로 밀고 나가!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 그러니까,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우선, 2문단 시작을 생각해보자. '**그러나**'라는 **담화표지**에서 칸트의 인식은 칸트 이전의 인식과 다름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최소한 칸트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든가, 주관과 인식에 대해 다른 견해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문단에서 영혼을 '생각하는 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칸트의 '자기의식'이 '영혼'을 뜻한다면, 칸트는 최소한 '**영혼'의 존재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영혼 ≠ 인격 동일성** 아닐까? 왜냐하면, 칸트는 최소한 칸트 이전의 견해를 부정해야 하니까!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 칸트의 결론을 바로 제시해준다.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자기의식)이, 내 안에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보장)하지는 못해. 그냥... '**있을 수도?**' 하는 '**가능성**'만 남겨둘 뿐이야."

즉, 칸트는 "영혼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한 거다. 아, 칸트는 **영혼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인격 동일성을 논할 때 '**영혼**'이라는 존재를 가져오면 안된다는 말이군!

3문단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 자, 이제 칸트가 '칸트 이전의 옛날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박살 내는지 보여준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견해를 반박하려면? **이전 견해의 내용**을 끄집어 와야 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칸트가 '칸트 이전의 논리를 뜯어보자'고 하는 부분이다.

전제 1: 인격은 자기 동일성을 '의식'한다. (OK)

전제 2: 영혼은 자기 '의식'을 한다. (OK)

결론: 고로, 인격 = 영혼이다. (Wait... 이건 댜 논리야? (X))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이 지문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논리 비판' 부분이다.

칸트는 '칸트 이전 옛날 생각'이 같은 '의식'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다른 뜻으로 몰래 썼다고 지적한다. 전제 1에서는 '의식'이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이지만, 전제 2에서는 꼭 실재함을 뜻하지 않는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최소한 '칸트는 두 전제의 의식의 의미가 다르다고 했네!' 까지만 확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추가 보충 설명-이해의 영역

전제 1의 '의식' = "나는 '존재하는 나'를 의식한다" (존재 보장 O)

전제 2의 '의식' = "나는 '생각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존재 보장 X, 실재함을 뜻하지 않음)

따라서 두 전제의 인과성이 없음

더 쉬운 비유:

전제 1: "훌륭한 기수(騎手)는 말(Horse)을 잘 다룬다."

전제 2: "훌륭한 웅변가는 말(Speech)을 잘 다룬다."

결론: "고로, 훌륭한 기수는 훌륭한 웅변가이다."

...말이 안 되지? 같은 '말'이라고 같은 게 아니다. 칸트는 '영혼 = 인격'이라는 논리가 딱 이 수준이라고 깎 거다.

4문단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그럼 '영혼'을 버린 칸트의 대안은 뭔데?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건 포기한다. (어차피 증명 못하니까) 대신, 일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의 주관이 어제의 나 = 오늘의 나**'라고 가정하고 시작하자!"라고 제안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최소 체크는 해둬야 한다. 왜냐고? 칸트가 '**반드시 선행**'이라고 못박은,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왜 가정을 해야만 해?

만약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1문단에서 말한 '약속 지키기'(윤리적 판단)는 물론이고, "어제 본 사과를 팔겠는데, 오늘도 보니 빨강네"(경험적 판단) 같은 모든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논리(A가 가능하려면 B를 가정해야 한다)를 '초월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웅어는 몰라도 된다. 그냥 "칸트는 '증명' 대신 '필수적인 가정'을 내세웠다" 고만 잡으면 된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같은 말 반복이다. **통시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시간의 흐름**'을 뜻하니까. 예를 들어, 1시에 본 '번적'과 2시에 들은 '우르릉'을 연결해서 '아, 번개 쳤구나'라고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려면, 1시와 2시에 '동일한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솔직히, 실전적 판단을 여기까지 하는건 개오바(...)이다. 칸트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구역 구역, 칸트의 핵심 주장만 기억하자.

〈영혼은 동일성 보장 X, 시간의 흐름 필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임을 가장〉

⇒ 딱 여기까지는 정말 '구역구역' 잡아놔야 나중에 발체독이라도 한다.

5문단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 자, 새로운 인물 스트로슨 등장. 칸트와 공통점, 차이점을 잡아볼까?

칸트 동의(O): '자아'를 아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 방식과 다른 건 인정. (참고-칸트는 언제 경험과 자아 인식이 다르다고 함? 4문단에서 칸트는 자아를 '가정'해야 경험, 윤리 등 생각이 가능하다고 했음. 그러니까 가정 이후 → 경험이라는 말로, 자아 인식과 경험을 구분하고 있는데... 참 이 지문에서 쌤이 너무 자주 말하지만, 모르겠으면 어찌라고? '아 그냥 공통점이네' 하고 넘겨!)

칸트 비판(X): 근데 "일단 가정하고 보자"고? 그거 그냥 "철학적 상상(뇌피셜)" 아님? 이라고 칸트를 깬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 스트로슨이 칸트를 비판하는 근거로 '신체'를 간과했음을 든다. (칸트는 이 얘기를 안 했음)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 + 신체'의 복합으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 그러니까, 스트로슨의 논리는 '칸트 너는 '뇌피셜'이지? 나는 '과학적 사실'로 말할게.' 이거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 그렇지. 신체는 과학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경험을 매개로 '추상화'("뜨겁다", "아프다", "빨갛다"...)해내는데, 그게 바로 '자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 스트로슨의 결론. "나는 왜 어제와 같은 나인가?" → "내 '신체'가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있 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로슨은 인격이 통시적으로 동일한 것은 '경험'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경험을 매개하는 것이 신체라는 말이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 칸트와의 정면충돌!

칸트: '자기의식'(자아)이 먼저 '조건'으로 있어야 B '경험'이 가능하다. (자아 → 경험)

스트로슨: '경험'이 먼저 '원인'으로 있어야 B '자기의식'(자아)이 '결과(추상화)'로 생긴다. (경험 → 자아)

*시험장 생각: "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이구나. 칸트는 '자아'가 닭, 스트로슨은 '경험'이 달걀이라고 하네."

6문단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마지막 인물 롱게네스 등장. 등장하자마자 스트로슨을 꺾다.(좀 친하게 지내...) "경험에서 자아를 뽑아낸다고? 웃기네."

왜? "애초에 '동일한 자아'가 없으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어어? 이 논리 어디서 봤지? 이거 칸트 논리와 유사하잖아?! (자아 → 경험)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 오케이, 롱게네스는 복잡하네.

(스트로슨 비판) '경험 → 자아'가 아니라 '자아 → 경험'이다. (이 점에서 칸트 팬)

'하지만' (칸트와 다른 점): 이 '자아/인격'은 저세상 영혼 같은 게 아니라, '시공간적 세계'(현실)의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 롱게네스는 칸트의 '윤리학'(도덕, 자율성)도 좋아하네. (또 칸트 팬)

*조심! 칸트가 앞서 나오긴 했는데, 앞선 1~4문단의 칸트는 도덕, 자율성 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등장한 칸트의 도덕, 자율성은 지금 새로 추가된 정보인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 **답화표지** 확인! '그러나'.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자기 식으로 재해석한다.

롱게네스에게 '자율성'이란? **현실 세계에서 '선택(Choice)' 하는 능력.**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최종 결론. (가장 중요!)

롱게네스는 '자율성'을 중시함.

'자율성' = 현실에서 '선택'하는 것.

현실에서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해? → '신체(Body)'가 필요.

고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바로 그 '신체' 다! 자, 신체를 보는 순간 누구? 그렇지. 롱게네스는 스트로슨을 비판했으나, 신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스트로슨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진쌤의 지문 최종 총평

이 지문은 26 수능에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지문이다. 이 지문의 학자들은 총 4파전이다.

화제: 인격 동일성- '나는 왜 어제의 나인가?'

전통: '영혼' 땀에. (칸트가 논리 오류로 박살 냄)

칸트: '자기의식'(자아) 이 모든 생각의 '논리적 조건'이라고 '가정'해야 함. (자아 → 경험) (신체 언급 X)

스트로슨: '가정'은 뇌피셜. '신체' 를 통한 '경험' 에서 '자아'가 나옴. (경험 → 자아) (신체 = 경험의 도구)

룽게네스: 스트로슨 틀림. 칸트 논리(자아 → 경험)가 맞음. BUT, 그 '자아'는 '신체' 가 꼭 필요함. 왜? '도덕/자율성'은 '선택'이고, '선택'은 '신체'로 하니까. (신체 = 선택의 주체)

핵심 쟁점:

'자아' vs '경험' 뭐가 먼저? (칸트/룽게네스 vs 스트로슨)

'신체'가 왜 필요해? (스트로슨: 경험하려고 / 룽게네스: 선택(도덕)하려고)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은 최소한 문제를 전부 맞추기 위해서 잡아내야 하는 포인트이다. 하지만 수능은 '현장감'이라는 것이 있지? 이것이 모든 학생이 가능할 리가 없다. (설령 평소 1등급을 밥 먹듯이 맞는 학생이라도!) 구역구역, 학자들의 핵심 주장만 체크하면서 따라가되, '되는데까지만 빨리'하고 넘기자. 시험 운용에는 빨리 넘겼다가 돌아와서 다시 보는 '리프레시' 전략도 중요하다.

정답과 해설

14. ⑤

6문단에서 롱게네스는 인간의 '자율성'을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살아 있다는 것'이 '선택'에 '필수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① 2문단에서 칸트는 자기의식이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실재할 가능성'만을 열어둔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② 4문단에서 칸트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독립적'이라는 서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③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한다고 보았으므로,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④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였다. '의식'을 매개로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15. ①

이 문항은 [A] 단락(3문단)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지를 묻고 있다. [A] 단락은 칸트가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을 반박하는 논증을 다루고 있다. 칸트는 '인격'이 포함된 첫 번째 전제의 '의식'과 '영혼'이 포함된 두 번째 전제의 '의식'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A]의 마지막 문장은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전제의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으로 '실재성'을 함의하지만, 두 번째 전제의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 단락은 두 전제를 연결하는 핵심 개념인 '의식'이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함의를 갖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답을 제공하고 있다.

- ② '복수의 주관'에 대한 가정은 칸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스트로슨이 제시하였으므로, 칸트를 다른 [A]단락과 맞지 않는다.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A]가 아니라, '칸트 이전의 견해'이며, 이에 대하여 칸트는 2문단에서 영혼의 실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칸트는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있

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칸트의 견해와도 맞지 않는다.

④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는 4문단 첫 문장에서 칸트가 포기한 입장으로 언급되며 [A]에서 다루지 않는다.

⑤ [A]에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영혼'을 '생각하는 나'로, '자기의식'을 '나는 생각한다'로 재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각각 1문단과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문단에 따라 '생각하는 나=영혼'이므로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가 같은 말임은 '맞는' 진술이지만, 문항의 범주에서 요구한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범주에서 이탈하여 답이 될 수 없다.

16. ②

이 문항은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세 학자의 입장을 핵심 개념별로 비교, 분석하는 문항이다. ② 스트로슨의 입장을 묻고 있다. 5문단에 따르면 스트로슨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며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는 '경험'이 '자아 인식'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경험 → 자아)이다. 선지 ②는 반대로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자아 → 경험)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스트로슨이 비판한 칸트나 롱게네스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자아 인식이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6문단에서 롱게네스는 자아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6문단에서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인격의 통시적 동일성)는 이 글의 핵심 화제(1문단)이다.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모두 이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보장하는 '기준'이나 '인식 방식'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펼치고 있으므로, 개념 자체를 '수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7. ③

이 문항은 지문의 여러 철학적 관점을 <보기>의 가상 대화(인격과 신체의 관계)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문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갑,을이 지문의 어떤 학자와 유사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우선, 갑은 '살아 있는 신체'가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의식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5문단에서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 스트로슨의 견해와 일치한다. (*룽게네스도 신체를 중시하지만, '선택'과 '자율성'을 위한 전제로서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갑의 논리와는 결이 다르므로, 갑은 룽게네스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 을은 신체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문단에서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려 했던 '칸트 이전까지'의 견해와 그 논리 구조가 하다. 따라서 을은 칸트 이전의 견해로 볼 수 있다. (다만, 칸트 이전의 견해는 이를 영혼으로 보았으나, 을은 '사고 기능'으로 보고 있으므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

③번 선지를 보자.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1문단에 따르면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하는 것이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즉 '인격 = 영혼(생각하는 나)'이다. <보기>의 갑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격의 동일성이 영혼의 지속으로 보장된다고 본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갑의 입장이 '옳지 않겠군'이라고 한 반응은 적절하다.

① 룽게네스는 6문단에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이 '신체'라고 주장하며,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룽게네스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

② 전형적인 '수식 범주 낚시' 선지이다.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은 맞는 진술이다. 그런데, 스트로슨은 5문단에서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인 프로그램(을)은 인격이 될 수 없다. 반면, 을은 신체가 없는 프로그램도 우리 두뇌의 사고 기능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을이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고 한 관형절의 범주가 틀린 것이다.

④ 칸트 견해를 꾸역꾸역 따라가서, 담화 표지(4문단의 '반드시')를 체크했다면 함정을 피할 수 있었

다. 칸트는 4문단에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을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칸트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

⑤ 룽게네스는 6문단에서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인격 동일성의 기준으로 '신체'를 제시한다. 따라서 신체가 없는 프로그램의 '사고 기능'이 인격 동일성의 기준이 된다는 을의 입장은 룽게네스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